‘(是)……的’구문의 통사 · 의미와 한국어 대응관계를 통한 교육방안*

이은경**

目 录

1. 서론
2. ‘的’의 통사적 분포와 한국어 ‘것’, ‘것이다’, ‘-었다’와의 대응관계
3. ‘(是)……的’구문의 의미와 ‘-것이다’와 ‘-었다’의 의미차이
4. ‘(是)……的’구문 교육방안의 제안
5. 결론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중국어 ‘我(是)從圖書館借的(書)’와 같은 ‘(是)……的’구문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통사·의미적으로 이러한 구문 역시 ‘這是從圖書館借的書’와 같이 한국어 ‘-것이다’와 대응시킬 수 있음을 논의하고, 한국인의 이러한 ‘(是)……的’구문의 특징에 대한 이해와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劉月華(2004)에서 ‘(是)……的’句(一)로 분류한 다음과 같은 형식이다.[1)]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6737).

** 韓國外國語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部 講師

www.kci.go.kr

(1) 他是兩点半出去的。 우리는 두 시에 출발한 것이다.
(2) 我是在預售處買的票。 나는 표를 예매처에서 산 것이다.
(3) 小王告訴我的。 샤오왕이 알려준 것이다.
(4) 天中午我們是吃的餃子。 오늘 정오에 우리는 만두를 먹은 것이다.

이와 같은 '(是)……的'구문은 동작이 이미 과거에 발생했거나 또는 완료되었고, 그리고 이 사실이 이미 의사소통 양측이 공통으로 알고 있는 정보(구정보)일 때 사용된다. 이러한 구문을 사용할 때 화자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미표현의 중점(즉 문장 전체의 표현초점)은 동작자체가 아니라, 동작과 관련된 어떤 한 측면, 예를 들면, 시간, 장소, 방식, 행위자, 수동자 등이다.[2] 그리고 '是'의 역할은 그것에 후행하는 성분이 문장의 표현초점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的'의 기능은 술어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이미 과거에 발생했거나 완료된 것임을 표시한다.[3]

이러한 '(是)……的'구문의 예들이 한국어로 된 중국어 문법서에 풀이되어 있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4]

---

1) 劉月華(2004) 762쪽의 예문이다. 李訥 등(1998)에서는 '(是)……的'문을 세 가지 의미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1.현실사건의 책임자를 단정(예1)하고, 2.현실사건의 조건을 강조(예2,3)하는 유형이 본문의 연구범위에 속한다. 3.비현실 사건에 대해 확신(예:a.你是不會走錯門的。b.你會的肺癌的。)하는 유형3은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전기정(2014)은 '是……的'구문을 대략 아래와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Ⅰ. 他的衣服是紅的。(그의 옷은 빨간색이다.)
Ⅱ. 他是去年畢業的。(그는 작년에 졸업했다.)
Ⅲ. 提前兩天完成任務是可能的。(이틀 당겨서 임무를 완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중 유형Ⅱ는 과거에 일어난 일의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원인, 목적, 방식 등을 부각시킬 때 사용하며, 이러한 유형은 '是'는 생략할 수 있으나 '的'는 생략할 수 없는 '是……的'구문으로 '是……的$_2$'구문이라고 하였다. 이 '是……的$_2$'의 유형이 바로 본고의 논의범위의 '是……的'구문이다.

2) 劉月華(2004)는 예(4)와 같이 문장도 '(是)……的'구문으로, 이러한 구문은 수동자를 의미표현의 중점으로 삼는 것이라고 보았으나, 반대로 이러한 구조는 '(是)……的'구문으로 볼 수 없다는 관점(王光全(2003) 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3) 劉月華(2004) 762-763쪽 참고.

www.kci.go.kr

(5) 시간·장소·대상 강조

a. 我是去年九月來北京的。 나는 작년 9월에 베이징에 왔다. (시간 강조)

b. 我們是上个星期去的長城。 우리는 지난주에 만리장성에 갔다. (시간 강조)

c. 這本書是從圖書館借的。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린 것이다. (장소 강조)

d. 他是跟女朋友一起來的。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왔다. (대상 강조)

(6) 주어·방식·목적·용도 강조

e. 這是老師教我的。 이것은 선생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것이다. (주어 강조)

f. 我是騎自行車來的。 나는 자전거를 타고 왔다. (방식 강조)

g. 他是來學習漢語的。 그는 중국어를 배우러 온 것이다. (목적 강조)

위와 같은 '(是)……的'구문의 한국어 해석부분을 보면, 각 문장의 서술어동사의 형식이 어떤 것은 '-었다'로 어떤 것은 '-것이다'로 풀이되어 있다. 그리고 더 자세히 관찰하면, 위의 문장은 모두 '-었다'로(c.빌렸다, e.가르쳐 주셨다, g.왔다), 또는 모두 '-것이다'로(a.온 것이다, b.간 것이다, d.온 것이다, f.온 것이다)도 대응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된다.[5]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중국어의 '(是)……的'구문에 '-었다'와 '-것이다'가 완전히 동등하게 대응되는 것인가? 문제는 '-었다'를 통해 '(是)……的'를 설명하거나 풀이한다면 '(是)……的'구문과 동태조사 '了'가 사용된 구문의 사용상 차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면, 예문(5)의 b("我们是上个星期去的长城。")와 "我们上个星期去长城了。" 모두 동일하게 "우리는 지난주에 만리장성에 갔다."로 해석된다면, 한국어의 동일한 해석형식으로 인해 a와 b 두 문장의 의미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한선영·김명자(2013) 261쪽의 예문과 해석이다.

5) '것이다' 변환의 경우 기본형식 '것이다'로의 대응시키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낄 수 있지만, 발화에서는 구어체의 축약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b를 예를 들면, "너희는 언제 만리장성에 간 거야(간 것이야)?"라는 물음에 "우리는 지난주에 만리장성에 간 거야."라고 대답할 수 있다.

www.kci.go.kr

그렇다면 한국어 '-것이다'를 대응시키는 경우는 어떤가? 신선경(1993)에서는 "서술어 '이다'가 형식명사 '것'과 결합하여 쓰일 경우, 어떠한 통사·의미적 조건이 주어지면,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더 이상 문장의 핵이 되지 못하여 표면적으로 복합문 형식을 띤 문장이 단문화하며, 이 때 '것+이다'는 '것'과 '이다' 각각이 갖는 어휘의미와는 무관하게 그들에 선행하는 동사가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강조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양태범주로 전환되는 재구조화(restructuring)의 과정을 겪는다. …… '것이다'는 화자에 의해 이미 대상화되어 기정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6)]

본고는 신선경(1993)의 한국어 '-것이다'에 대한 설명이 중국어 '(是)……的'구문의 특징과 유사하게 대응되는 것임을 주목하여, 한국인에게 '(是)……的'구문을 교육할 때, '-었다'를 이용한 설명이 갖는 문제를 논의하고, '-것이다'를 사용하는 한국인의 직관을 '(是)……的'구문의 교육에 적절히 이용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연구이다. 즉 중국어 '(是)……的'구문은 한국어의 '것이다'구문에 대응되는 것으로써, 한국인 학습자에게 이를 '-었다'가 아닌 '-것이다'에 대응시켜 설명하는 교육방식이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제기에 대답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是)……的'구문의 적절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6) 신선경(1993)의 이러한 논의는 李訥 등(1998)의 '(是)……的'구문의 '的'를 문미어기조사로 본 논의와 비교적 일치하는 것이다. 李訥 등(1998)에 의하면 '的'는 문미어기조사의 일종으로 이 중 양태조사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즉, 이러한 '的'는 한 가지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이는 인식(epistemic)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하나의 명제에 작용하며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문장의 양태유형이다.

www.kci.go.kr

2. '的'의 통사적 분포와 한국어 '것', '것이다', '-었다'와의 대응관계

'(是)……的'구문의 '的'와 명사구를 구성하는 '的'의 관계와 한국어의 대응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的'의 통사적 분포와 의미기능을 한국어 대응형식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的'의 통사적 분포	예문	한국어 대응 형식
1. a. NP+的+NP b. NP+的	我的衣服 나의 옷 他的漢語研究 그의 중국어 연구 垃圾的處理 쓰레기의 처리 問題的解決 문제의 해결 他的 그의 것	a. 소유관계 조사/ 주어적 속격조사/ 목적어적 속격조사 '의' b. 소유관계 조사+'것' '의+것'
2. VP+的+NP[7]	漂亮的女孩 예쁜 여자 喝酒的人 술을 마시는 사람 現在要吃的菜 지금 먹을 요리	관형사형 어미 '-ㄴ/은/는/-ㄹ/을/를/던'
3. VP+的	我昨天買的 어제 산 것 剛才罵我的 방금 나를 욕한 사람 紅的 빨간 것	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 '-은/는/을 + 것(사물) 또는 사람'
4.(是)VP+的(+NP)	昨天買的(衣服) 내가 옷을 어제 산 것이다 在食堂吃的(飯) 밥을 식당에서 먹은 것이다 從圖書館借的(書) 책을 도서관에서 빌린 것이다	의존명사 '것'+'이다' '-것이다'
5. NP+的+VP	媽媽的突然住院 엄마의 갑작스러운 입원 (엄마의 갑작스럽게 입원함)	주어적 속격 명사절 '-의 -음'

이와 같이 중국어 '的'의 통사적인 분포를 보면 관형사형 어미 '-ㄴ/은/는/-

7) 표의 'VP'는 서술의 간략함을 위해 동사와 형용사를 포함한 것이며 본문의 주제 '(是)VP的(NP)'구문의 'VP'와 동일한 개념이 아님을 밝힌다.

www.kci.go.kr

ㄹ/을/를/던', '의', '것', '음', 관형사형 어미+ 것' 등의 한국어 형식과 대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4의 'VP+的(+NP)' 형식이 '(是)……的(NP)'구문인데, 'VP+的+NP'와 같이 '的'에 후행하는 'NP'가 존재하는 형식은 2와 동일하고, 후행하는 'NP'가 출현하지 않는 형식은 3과 동일하다. 한국어와의 대응관계를 보면, 2의 경우 '的'에 후행하는 'NP' 즉 피수식어 명사가 출현하면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활용형이 '的'와 대응되고, 3처럼 피수식어 명사가 출현하지 않으면 의존명사 '것'이 '的'와 대응되는 것이다. 이처럼 '(是)……的'구문이 2와 3의 형식과도 외형적으로 동일할 수 있기 때문에 'VP+的(NP)'의 형식은 2와 3처럼 명사성의 의미일 수도 있고 서술성의 '(是)……的(NP)'구문일 수도 있는 중의문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면, '昨天买的衣服'는 '어제 산 옷'과 '옷을 어제 산 것이다(샀다)'라는 두 가지 의미형식과 대응되며, '昨天买的'는 '어제 산 것'과 '어제 산 것이다(샀다)'라는 두 가지 의미 형식과 대응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 '昨天买的衣服'가 명사성일 경우 관형사형 어미의 역할을 하는 '的'(어제 산 옷), 그리고 '昨天买的'와 같이 '的'가 문미에 오는 '的'명사구와 '(是)……的'구문 역시 각각 '관형사형 어미+ 것(의존명사)'(어제 산 것), '관형사형 어미+ 것이다'(어제 산 것이다)로 단순한 대응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구문을 '-것', '-것이다'로 이해하는 것은 한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的'의 뒤에 목적어가 출현하는 '昨天买的衣服'(옷을 어제 산 것이다)와 같은 형식을 '(是)……的'구문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 적절한 설명방안의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是)……的'는 한국어의 '-것이다'로도 해석되고 '-었다'로도 해석될 수 있다. '這是從圖書館借的書'를 예로 들면, '的'로 구성된 'VP+的'(從圖書館借的)는 중심어 '書'가 생략되어도 명사성 성분, 즉 '書'를 지시할 수 있다.[8] 그리고 이러한 '的'의 용법은 한국인에게는 비교적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는 '從圖書館借的'의 '借的'를 '동사의 관형사활용형+ 것'(빌린

8) '這是從圖書館借的書'는 '我是從圖書館借的書'와의 대비를 위해 든 예인데, 다음 장에도 논의가 되는 부분이지만,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한 바와 같이 전자의 경우 후자와 달리 '是'가 생략될 수 없는 '是……的'구문이다.

www.kci.go.kr

것)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7) a. 這是從圖書館借的書。 이것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다.
b. 這是從圖書館借的。 이것은 도서관에서 빌린 것이다.

위와 같이 이러한 구문은 '이것'과 '책', '이것'과 '-빌린 것'의 공지시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我是從圖書館借的書'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한국어와 대응될 수 있다.

(8) 我是從圖書館借的書。
a.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것이다.
b.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9) 我是從圖書館借的。
a. 나는 도서관에서 빌린 것이다.
b. 나는 도서관에서 빌렸다.

예와 같이 이러한 '(是)……的'구문은 한국어 '-것이다'(a.'-빌린 것이다')외에 '-었다'형식(b.'-빌렸다')과도 대응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었다'는 동태조사 '了'가 사용된 구문에도 대응된다. 즉 '了'구문 "借了嗎?", "借了。"는 "빌렸어요?", "빌렸어요."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是)……的'구문과 '……了'구문 모두 '-었다'라고 이해하게 되면 한국인 학습자들은 '(是)……的'구문과 '……了'의 사용에 있어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是)……的'가 '-었다'로 대응될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어 '-것이다'구문과 '-었다'구문에 존재하는 차이를 밝혀,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일부 '(是)……的'를 '-었다'로 이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논의하고, 한국인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是)……的'구문과 의미적으로 대응되는 한국어 형식을 명확히 이해하여, 이러한 한국어형식의 사용에 대한 직관이 '(是)……的'구문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www.kci.go.kr

3. '(是)……的' 구문의 의미와 '-것이다' 와 '-었다' 의 의미차이

서론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어 '(是)……的'구문의 문장은 교재에서 '-것이다'와 '-었다'의 두 형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들이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차이를 반영한 것인지 알기 위해 한국어 해석을 기준으로 이 '(是)……的'을 다음과 같은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표 (2)

	A. (是)VP的(NP) '我是从图书馆借的书' 나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렸다	B. 是VP的(NP) '这是从图书馆借的书' 이것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다
1. 목적어 'NP'(书) 전치	他是從圖書館借書的 그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렸다	* 這是從圖書館借書的
2. 목적어 'NP'(书) 생략	他是從圖書館借的 그는 도서관에서 빌렸다	這是從圖書館借的 이것은 도서관에서 빌린 것이다
3. 부정형식	他不是從圖書館借的(書) 그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린 것이 아니다	這不是從圖書館借的(書) 이것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다
4. '是' 생략	他從圖書館借的(書) 그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렸다	* 這是從圖書館借的(書)
5. 주어와 '是' 동시 생략[9]	從圖書館借的(書) 책을 도서관에서 빌렸다	從圖書館借的(書) 도서관에서 빌린 책
6. 정반의문형식 (正反疑问形式)	他是不是從圖書館借的(書)? 그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린 것이냐 아니냐	這是不是從圖書館借的(書)? 이것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냐 아니냐
7. 목적어(수동자)의 화제화	這本書他是從圖書館借的 이 책은 그는 도서관에서 빌렸다.	? 這本書這是從圖書館借的

9) A와 B의 유형의 차이로 인해 주어와 '是'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도서관에서 빌렸다(빌린 것이다)'라는 서술적 의미와 '도서관에서 빌린 것'이라는 명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중의문 형식 '從圖書館借的'이 나타난 것이다.

www.kci.go.kr

그리고 일반적으로 '我是從圖書館借的書'와 같은 A유형이 '-었다'로 해석되고 '這是從圖書館借的書'와 같은 B유형이 '-것이다'로 해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유형은 주어만 다르고 서술부의 형식은 동일하다. 즉 A유형의 경우 '我'와 '書'가 공지시 관계(同指)가 성립하지 않으며, B유형의 '這'와 '書'는 공지시 관계(同指)가 성립한다.

그리고 표(2)에 대비된 것과 같이 A와 B 두 유형은 '的'의 후행명사 'NP'(書)의 생략, 부정형식 '不是……的', 주어와 '是'의 동시 생략 가능, 정반의문형식이 동일하다. 반면 1.목적어 'NP'(書) 전치, 4.'是'만 생략, 7.목적어의 화제화 등의 변환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특징의 대비를 통해 A유형은 전형적인 '(是)……的'구문으로 볼 수 있고, B유형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是'자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是)……的'구문으로 본다면 적어도 덜 전형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10]

이 처럼 외적 형식(변환식)이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내적 유형에 차이를 보이는 A유형과 B유형의 '(是)……的'구문이 한국어에서는 '-었다'와 '-것이다'로서 대응되고 있는 것이다.

'-었다'와 '-것이다'가 유사한 의미로 동등하게 대응될 수 있음에도 이렇게 두 유형의 해석이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한국어의 경우 A유형의 사람주어는 '것'으로서 지시하지 못하며, 주어와 과거 발생한 행위동작의 서술 관계로써 통상 '-었다'로서 이해되고, B유형의 사물주어는 '것'과 공지시 관계(同指)가 성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의 직관도 일반적으로 '(是)……的'의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 주어가 사람이면 '-었다'가, 주어가 사물이면 '-것이다'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들 '-었다'와 '-것이다'를 상기의 '(是)……的'구문의 두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是)……的'를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도록 교육한다면, 중국어 '……了'구문과의 차이가 간과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是)……的'의 정확한 의미의 이해와 사용

10) 張宝林(1994)는 이러한 B유형의 '(是)……的'구문을 중의문으로 설명하였다.

www.kci.go.kr

에 있어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A유형의 '(是)……的'구문은 한국어에서 '-었다'외에 '-것이다'로 대응시킬 수 있는데, 본고는 '(是)……的'구문과 '었다', '것이다'의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是)……的'구문의 부정형식은 '不是……的'인데 이러한 부정형의 경우 '-것이다'의 부정형 '-것이 아니다'(축약형 '-게 아니다')와 '-었다'의 부정형 '-않았다'로 대응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我不是昨天來的'라는 문장은 한국어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我不是前天去的。
  a. 나는 그저께 간 게(것이) 아니다.
  b. 나는 그저께 가지 않았다.

(10)a, b는 언뜻 보기에 한국어의 두 형식 '-것이다'와 '-하였다'가 모두 '(是)……的'라는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a의 경우 '그제'에 강세가 없어도 '그제'가 자연스럽게 문장의 초점이 된다면,[11] b는 '그제'에 강세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갔다'라는 의미가 되어 '(是)……的'구문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12] 곧 '-었다'구문의 경우 초점 '그제'에 강세를 두어야만 '(是)……的'구문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11) 袁毓林(1994)은 의미표현의 기능에서 보면 사건문 'S+Ad+V+O'가 사태문 'S+Ad+V+O的'('(是)……的'구문에 해당)로 전환되는 의미적 원인은 사건문 원래의 초점구조를 바꾸어 사태문 특유의 초점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다. 사건문을 무표지의 초점구조라고 한다면, 사태문은 유표지의 초점구조라고 할 수 있다. '是' 없이 초점성분에 강세를 두는(강세를 초점표지로 삼는) 것을 내재적(implicit, 隱式) 유표지 초점구조라고 할 수 있고, '是'라는 어휘수단을 초점표지로 삼아 초점성분에 강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은 외현적(explicit, 顯式) 유표지 초점구조라고 할 수 있다.

12) 山村博文(1999)은 '的'자문은 조응형식(anaphora)으로서 선행하는 발화구조와 발화환경의 동사성 어구를 조응하며 이러한 동사성구가 표현하는 것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이미 발생한 특정한 사건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인 서술성 문장과는 달리 그것이 전제하는 명제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다. 그래서 a의 '것이 아니다'('것이다' 구문)는 동작의 발생 자체(전제)가 부정되지는 않고 '간 시간'만이 부정되는 것과 달리, b의 '-하지 않았다'('-었다' 구문)는 강세에 따라 '간 것'(동작 발생)이 부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의 예와 같다.

(11) a. *나는 그제 간 것이 아니다. (어제도 안 갔다. 간 적이 없다.)
b. 나는 그제 간 것이 아니다. (어제 간 것이다/갔다.)
c. 나는 그제 가지 않았다. (어제도 안 갔다. 간 적이 없다.)
d. 나는 그제 가지 않았다. (어제 갔다/간 것이다.)

이와 같이 '간 것이 아니다'가 '갔다'라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있어 동작 발생을 부정할 수 없는 것(a, b)과 달리 '가지 않았다'는 '갔다'라는 동작의 발생을 부정할 수도 있고(c) '갔다'라는 사실을 전제할 수도 있는(d) 것이다. 이렇게 b('-것이다'의 부정형)와 d('-었다'의 부정형)가 동일한 의미 표현의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사실상 강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我不是前天去的, 是昨天去的。"와 같은 부정형과 긍정형이 대비될 경우 '-었다' 보다 '-것이다'의 부정 활용형 '-것이 아니라(게 아니라)'를 대응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음의 예와 같이 대응될 수 있다.

(12) 我不是前天去的, 是昨天去的。
a. 나는 그제 간 것이 아니라(게 아니라) 어제 갔어요.
b. 나는 그제 가지 않았고 어제 갔어요.
c. 나는 그제는 가지 않았고 어제는 갔어요.

"당신은 그제 갔어요?"라고 '그제'에 초점을 부여하여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a는 매우 자연스러운 대답으로 느껴지지만, '-었다'의 부정형으로 연결한 b는 부자연스러운 느낌이다. b는 오히려 '어제'와 '그제'를 "하루는 가지 않았고 하루는 갔다."고 대비시킨 c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我

www.kci.go.kr

不是前天去的, 是昨天去的。”의 의미와는 자연스러운 대응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是)……的’구문과 일반적인 사건문의 의미적 차이는 초점의 [+배타성] 특징에 의해 드러나는데, 즉 사건문은 의미적으로 대립적인 요소들이 상보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是)……的’구문은 배타성의 특징으로 인해 의미적으로 대립적인 요소들로 구성될 수 없다. 한국어의 ‘-었다’와 ‘-것이다’의 차이도 이와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것이다’구문의 경우 ‘그제 갔고, 어제도 갔다’라는 의미표현이 불가능하지만, ‘-었다’구문의 경우 ‘그제 갔고, 어제도 갔다’의 의미표현이 가능하다. 다음의 예와 같다.[13]

(13) a. 나는 그제 갔고 어제도 갔다.
b. * 나는 그제 간 것이고 어제도 간 것이다.

즉 b의 ‘-것이다’구문은 a의 ‘-었다’구문과 달리, ‘어제도’가 출현하여 선행하는 ‘그제’라는 초점이 갖는 [+배타성]의 특징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비문이 되는 것이다. 다음의 예와 같다. 행위자가 초점이 되는 ‘是我买的’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4) a. 내가 샀어, (내 동생도 샀어.)
b. * 내가 산거야, (*내 동생도 산거야 / 내 동생도 샀어)

이러한 구문의 배타성의 특징은 ‘나’라는 동작의 행위자가 부각될 경우,

13) 행위자가 초점일 경우에는 그 동작은 하나의 행위자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표현되며 둘 이상의 행위자의 동일한 동작을 긍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아빠가 산 게 아니라 내가 샀다. (아빠가 사지 않았고 내가 샀다.)
b. * 아빠가 산 것이고, 나도 산 것이다.
c. ? 아빠가 샀다. 나도 샀다.
위의 예문에 보이듯이 “아빠도 샀고 나도 샀다.”는 의미을 나타낼 때에는 c의 표현(-었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是)……的’구문에 대응되는 b와 같은 ‘-것이다’구문은 사용할 수 없다.

www.kci.go.kr

'나'와 대체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 동작을 했음이 부정되는 것이다. 또 '그제'라는 '동작의 발생 시간'이 부각될 경우, 어떤 다른 시간에 그 동작이 행해졌음이 부정되는 것이다. 이는 袁毓林(2003)에서 설명한 사태문 '(是)……的'의 초점성분이 갖는 [+배타성] 특징이 한국어 '것이다' 구문에도 적용가능하며, 이러한 '-것이다'와 '-었다'구문의 대비적 특징을 통해 중국어의 '(是)……的'구문이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14]

세 번째, '(是)……的'구문의 긍정형과 부정형이 나타나는 정반의문문 형식 '是不是……的?'는 한국어로 '-었다'가 아닌 '-것이다'로 표현된다. "他們是不是上星期去的長城?"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5) 他們是不是上星期去的長城?
a. 그들은 만리장성에 지난주에 간거야? 아니야?(지난주에 간게 아니야?)
b. 그들은 만리장성에 지난주에 갔어? 안갔어?(지난주에 안갔어?)

a는 '-것이다'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반면, b는 중국어의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是)……的'구문은 한국어 '-것이다'와 '-었다'에 대응될 수 있지만, '-었다'로 대응될 때에는 반드시 초점성분에 강세를 주어야 함을 보았는데, '-것이다'구문의 경우도 강세를 통해 초점을 부각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서술부분의 초점이 될 수 있는 부사어 성분이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그 중 어떤 것이 초점성분인지 강세를 통하지 않고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다음의 예와 같다.

(16) (是)我昨天買的
a. 내가 어제 샀어.

14) 袁毓林(2003)은 초점이론을 이용해 이러한 '(是)……的'구문의 의미기능을 연구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是)……的'구문은 사건문이 아닌 사태문으로서, 그러한 사태문의 초점은 판정초점(判定焦点)으로 [+대비성]과 [+배타성]의 두 가지 의미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확인의 의미를 나타낸다.

www.kci.go.kr

b. 내가 어제 산 것이다.

위의 a와 b구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산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날이 아닌 어제 산 것인지' 강세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즉 강세를 통해 '내가 샀다'는 것인지, '어제 샀다'는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 '(是)……的'구문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동작이 발생했다는 것이 새로운 정보로서 출현할 때의 의미표현은 '了'와 '-었다'가 사용되고, 이러한 동작이 발생했음을 전제(구정보)로 하여, 동작의 행위자나 조건・환경적 요소에 교체 가능한 구성원 중 [+배타성]을 지닌 유일한 하나만이 동작에 관계될 때 '的'와 '-것이다', '-었다'가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초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분이 하나라면 '-것이다'는 무표지의 대비초점 구조로 초점 성분에 강세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었다'는 그것이 가지는 일반적인 사건문 '了'구문에 대응되는 의미와 구별하기 위하여, 초점성분이 한 개라도 그것에 강세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초점역에 한 개 이상의 초점 후보군이 존재할 경우에는 '-것이다'와 '-었다'는 모두 강세를 통하여 초점성분을 부각시켜야 하였다.

이와 같이 '-것이다'과 '-었다'의 차이를 통해 표(2)의 B유형은 물론이고 A유형의 '(是)……的'구문이 갖는 초점의미를 포괄적으로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한국어의 대응형식은 '-것이다'구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15] 본고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었다'와 '-것이다'를 상보적으로 이용해 '(是)……的'구문(특히 A유형)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예를 들면, 다음의 예는 두 동작이 야기하는 동일한 결과간의 선택문에 '的'를 사용할 수 있지만(17),

15) 신선경(1993)에서는 서술어 '이다'가 형식명사 '것'과 결합하여 쓰일 경우, 어떠한 통사・의미적 조건이 주어지면,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더 이상 문장의 핵이 되지 못하여 표면적으로 복합문 형식을 띤 문장이 단문화하며, 이 때 '것+이다'는 '것'과 '이다' 각각이 갖는 어휘의미와는 무관하게 그들에 선행하는 동사가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강조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양태범주로 전환되는 재구조화(restructuring)의 과정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중국어 '(是)……的'구문의 특징에 상당부분 대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www.kci.go.kr

그러나 하나의 동작이 야기하는 두 결과간의 선택문에는 '的'가 아닌 '了'를 사용해야 함을 보이는 것(18)이다.

(17) 他是被打傷的還是自傷的?
그는 맞아서 다쳤어요? 자해해서 다쳤어요?

(18) a. *他昨天撞傷的還是撞死的?
b. 他昨天撞傷了還是撞死了?
그는 어제 부딪혀서 다쳤어요? 부딪혀서 죽었어요?

이와 같이 이러한 '(是)……的'구문에 '-었다'를 대응시켜 교육할 경우, (18a)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17)과 (18a,b) 모두 한국어 '-었다'구문으로 대입하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면 '(是)……的'구문을 '-것이다'로 이해하면, 한국어로도 * "그는 어제 부딪혀서 다친 거에요? 아니면 부딪혀서 죽은 거에요?"라는 '-것이다'구문의 표현은 부적격의 문장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도 (18a)의 부적격성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4. '(是)……的' 구문 교육방안의 제안

중국어 '(是)……的'구문의 교육에 있어서 '주어(또는 부사어)+술어+목적어'구조(S(Ad)+V+O)와 '的'를 가진 명사성의 수식구조(즉 'VP+的+NP(O)')와의 변환관계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是)……的'구문의 형식은 '的'에 후행하는 'NP'성분이 나타날 경우 명사성 수식구조의 형식이지만 중국어의 'S(Ad)+V+O(NP)'구성과 동일한 어순에서 변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의미 역시 명사성(수식구성)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술어와 목적어의 결합인 서술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S(Ad)+V+O'와 같은 서술성 문장에서 출발하여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的'를 첨가하는 수식관계

www.kci.go.kr

변환식 'S(Ad)+V+的+O'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다음의 예와 같이 A, B, C의 변환관계를 정리해 보이는 것이다.

표 (3)

	A(S(Ad)+V+O)	B(S(Ad)+V+的+O)	C(S(Ad)+V+的)
a	大衛買照相机 데이비드는 카메라를 산다	大衛買的照相机。 데이비드가 산 카메라 데이비드가 카메라를 산 것이다	大衛買的。 데이비드가 산 것 데이비드가 산 것이다
b	昨天買照相机 어제 카메라를 샀다	昨天買的照相机。 어제 산 카메라 카메라를 어제 산 것이다	昨天買的 어제 산 것 어제 산 것이다
c	在明洞買照相机 명동에서 카메라를 산다	在明洞買的照相机。 명동에서 산 카메라 카메라를 명동에서 산 것이다	在明洞買的。 명동에서 산 것 명동에서 산 것이다
d	跟朋友一起買照相机 친구와 함께 카메라를 산다	跟朋友一起買的照相机。 친구와 함께 산 카메라 카메라를 친구와 함께 산 것이다	跟朋友一起買的。 친구와 함께 산 것 친구와 함께 산 것이다
e	花20万買照相机 20만원을 들여서 카메라를 산다	花20万買的照相机。 20만원을 들여서산 카메라 카메라를 20만원을 들여서 산 것이다	花20万買的。 20만원 들여 산 것 20만원 들여 산 것이다
f	給弟弟買照相机 남동생에게 카메라를 사준다	給弟弟買的照相机。 남동생에게 사준 카메라 카메라를 남동생에게 사 준 것이다	給弟弟買的。 동생에게 사준 것 동생에게 사준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첫 단계로, 일반적인 명제문 A는 서술성구조이고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的'를 첨가한 구조 B는 '的'가 관형사형 어미에 해당하는 명사성 수식구조이고, 목적어(중심어)를 생략한 구조 C는 '的'가 '것'에 해당하는 명사성구조라는 것을 설명한다.

www.kci.go.kr

두 번째 단계는, B와 C가 명사성일 뿐만 아니라 서술성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는 중의구조임을 파악하도록 서술성의 '-것이다'구문에 대응시킨다. 이 때 C의 경우 앞에 '這是-'를 붙여서 설명하면 '-것이다'와 매우 자연스럽게 대응됨을 알 수 있는데, 반면 '他是-'와 같이 사람주어 성분을 붙이면 '-었다'와 대응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때에도 초점성분에 주어지는 강세에 주의하여 설명한다.

B의 경우 이것을 서술성 문장으로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즉 기학습된 명사성 수식구조와 동일한 형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순을 서술성으로 이해하고 응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사실상 '(是)……的'구문의 '的' 뒤에 출현하는 명사는 초점적 지위를 상실한 목적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목적어는 화제화를 통해 문두에 위치할 수 있는 잠재적인 화제라고 할 수 있다.[16] 이러한 목적어는 한국어의 해석에 있어서 서술동사의 바로 앞보다는 좀 더 전치시키는 것이 화제적 의미표현의 이해에 더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표(3)의 B를 다음과 같이 한국어로 옮기는 것이다.

(19) a. 大衛買的照相机。카메라를 데이비드가 산 것이다.
b. 昨天買的照相机。카메라를 어제 산 것이다.
c. 在明洞買的照相机。카메라를 명동에서 산 것이다.
d. 跟朋友一起買的照相机。카메라를 친구랑 같이 산 것이다.
e. 花20万買的照相机。카메라를 20만원 주고 산 것이다.
f. 給弟弟買的照相机。카메라를 동생을 위해 산 것이다.

16) 袁毓林(1995)에 의하면 '(是)……的'구문은 일종의 유표지의 초점구조이다. 즉 사건문 'S+Ad+V+O'에서 사태문 'S+Ad+V+O的'('(是)……的'구문에 해당)로 유도하는 의미적 원인은 사건문의 초점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 중 비교적 명확한 효과는 사건문 목적어의 초점지위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사건문의 사태화가 초래한 의미적 결과를 목적어의 탈초점화(defocusation)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초점인 목적어 'O'는 잠재적인 화제기능을 가지며, 그래서 특정 문맥에서 화제화를 통해 문두로 이동하여 외현적인 화제(顯性話題)가 된다.

www.kci.go.kr

이에 더해 B의 목적어가 문두의 화제로 실현된 화제화 변환형식도 제시하며, 이를 연습하면서 이들 목적어 성분의 화제적 지위를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2) a. (照相机) 大衛買的。 (카메라는) 데이비드가 산 것이다.
b. (照相机) 昨天買的。 (카메라는) 어제 산 것이다.
c. (照相机) 在明洞買的。 (카메라는) 명동에서 산 것이다.
d. (照相机) 跟朋友一起買的。 (카메라는) 친구랑 같이 산 것이다.
e. (照相机) 花二十万買的。 (카메라는) 20만원 주고 산 것이다.
f. (照相机) 給弟弟買的。 (카메라는) 남동생을 위해 산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문장들을 의문문으로 전환하여 질의하고 이에 응답하는 연습을 진행한다. 즉 '(是)……的'구문의 초점성분을 '誰', '什么時候(几点)', '(在)哪儿(什么地方)', '怎么' 등의 의문사로 대체하여 화자와 청자가 모두 어떤 행위동작이 발생했다는 것을 아는 상황(적어도 화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전제하거나 청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상황)에서 그 동작에 대한 부가정보를 확인하는 '질의-응답'의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래 (21)의 B'와 C'예문은 모두 '買照相机了'라는 발생동작에 대한 부가적 정보를 확인하는 질의이며, 표(3)의 B와 C가 이에 대한 응답형식이다.

	B'	C'
(21) a.	誰買的照相机?	(照相机) 誰買的?
	카메라를 누가 산 것이냐	(카메라는) 누가 산 것이냐
b.	什么時候買的照相机?	(照相机) 什么時候買的?
	카메라를 언제 산 것이냐	(카메라는) 언제 산 것이냐
c.	在哪里買的照相机?	(照相机) 在哪里買的?
	카메라를 어디서 산 것이냐	(카메라는) 어디서 산 것이냐
d.	跟誰買的照相机?	(照相机) 跟誰買的?

www.kci.go.kr

카메라를 누구랑 산 것이냐　　(카메라는) 누구랑 산 것이냐
e. 花多少錢買的照相机?　　(照相机) 花多少錢買的?
카메라를 얼마주고 산 것이냐　(카메라는) 얼마주고 산 것이냐
f. 給誰買的照相机?　　(照相机) 給誰買的?
카메라를 누구에게 사 준 것이냐 (카메라는) 누구에게 사 준 것이냐

이러한 과정의 연습을 통해 이러한 '(是)……的'구문은 의미적으로 동작이 이미 발생했음을 전제로 하여, 동작발생의 책임자, 조건 등 부가정보를 확인하는 대화문에 자주 사용됨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또한 '(是)……的'가 한국어의 '-었다'로 해석될 경우에도 그것의 대비성, 혹은 배타성 초점에 강세를 두어서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문에 사용되는 '了'와 대응관계에 있는 '-었다'가 아닌 '(是)……的'구문에 의미적으로 대응되는 '-었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것이다'구문 역시 배타성의 초점성분에 강세를 두어야 할 때도 있음을 주의하고, 부정형식 '不是……的'와 긍정형식 '(是)……的'를 '-것이다'구문의 부정형식 '-것이 아니라(게 아니라)'와 긍정형식과 대비시키고, 정반의문형식(正反疑问形式)과도 대응시킴으로써 '(是)……的'구문의 전제와 초점특징, 더 나아가 그 의미를 더 정확히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是)……的'구문을 한국어 '-었다'와 대응시키는 설명이 갖는 문제를 논의하고, '-것이다'를 사용하는 한국인의 직관을 '(是)……的'구문의 교육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是)……的'구문의 설명에 사실상 이용되는 한국어 '-것이다'구문과 '-었다'구문의 차이를 밝혀,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일부 '(是)……的'를 '-었다'로 이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논의하였고, 한국인들에 대한 교육에

www.kci.go.kr

있어서 '(是)……的'구문과 의미적으로 대응되는 한국어 형식은 '-것이다'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한국어형식의 사용에 대한 직관이 '(是)……的'구문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안을 모색하였다.

의미적으로도 '(是)……的'구문의 초점성분이 갖는 [+배타성] 특징이 한국어 '-것이다' 구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보았고. 이에 더 나아가 '-것이다'와 '-었다'구문의 대비적 특징의 설명을 통해 중국어의 '(是)……的'구문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교육안은 '(是)……的'구문과 '주어(또는 부사어)+술어+목적어'구조(S(Ad)+V+O)와 '的'를 가진 명사성의 수식구조(즉 'VP+的+NP(O)')와의 변환관계의 제시로부터 시작하여, '的' 뒤에 출현하는 초점적 지위를 상실한 목적어는 화제화를 통해 문두에 위치할 수 있는 잠재적인 화제임을 이해하도록 하고. 한국어의 해석에 있어서 서술동사의 바로 앞보다는 좀 더 전치시킴으로서 그 의미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실상 '(是)……的'가 한국어의 '-었다'로도 대응될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고, 이 때에도 그것의 대비성, 혹은 배타성 초점에 강세를 두어서 이러한 '-었다'가 일반적인 사건문에 사용되는 '了'와 대응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是)……的'구문의 부정형식과 긍정형식을 대비시켜, 부정형식을 '-것이 아니라(게 아니라)'로 설명하고, 정반의문형식(正反疑問形式)과도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시킴으로써 '(是)……的'구문의 의미가 더 정확히 학습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www.kci.go.kr

參考文獻

김선희, 「초급단계 "시(是)……적(的)2" 구문의 지도」, 『중국언어연구』46권, 2013, 273-300쪽.
신선경, 「'것이다'구문에 관하여」, 『국어학』23집, 1993, 119-158쪽.
원춘옥, 「현대중국어 "시(是)…적(的)"문에서 "시(是)"의 문법기능 소고」, 『중국언어연구』30권, 2009, 139-163쪽.
원춘옥, 「현대중국어 "……的"구문과 "시(是)……적(的)"(一)」, 『중국어문논총』68권, 2015, 27-49쪽.
전기정, 「시(是)……적(的)$_2$ 구문의 통사적 특징과 오류분석」, 『중국학논총』46권, 2014, 215-238쪽.
한선영·김명자, 『신HSK 한권이면 끝』, 동양북스, 2013, 261쪽.
韓在均, 「"是…的"句的語用分析」, 『중국어문학논집』54집, 2009, 175-187쪽.

郭銳, 「表述功能的轉化和"的"字的作用」, 『当代語言學』 第一期, 2000.
韓梅, 「"是……的"句的句法語義分析」, 『東疆學刊』 第二期, 2005.
李訥·安珊笛·張伯江, 「從話語角度論証語气詞"的"」, 『中國語文』 第二期, 1998.
劉月華等, 「實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2004, 762-771.
呂必松, 「關于"是……的"結构的几个問題」, 『語言教學与研究』 第四期, 1982.
呂叔湘, 『中國文法要略(中卷)』, 商務印書館, 1944.
馬學良·史有爲, 「說"哪儿上的"及其"的"」, 『語言研究』 第二期, 1982.
木村英樹, 「關于補語性詞尾"着/Zhe/"和"了/le/"」, 『語文研究』 第2期, 1983, 24-32.
木村英樹, 「"的"字句的句式語義及"的"字的功能擴展」, 『中國語文』 第四期, 2003.
齊滬揚·張秋杭, 「"是……的"句研究述評」, 『广播電視大學學報』 第四期, 2005.
杉村博文, 「"的"字結构、承指与分類」, 江藍生·侯精一主編 『漢語現狀与歷史的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64-66.
史有爲, 「表已然義的"的ｂ"補議」, 『語言研究』 第一期, 1984.

www.kci.go.kr

石毓智,「論“的”的語法功能的統一性」,『世界漢語教學』第一期, 2000.
宋玉柱,「關于“是……的”結构的分析」,『天津師院學報』第4期, 1978, 75-76.
宋玉柱,「關于時間助詞“的”和“來着”」,『中國語文』第四期, 1981.
田 泉,「“是”、“的”合用及單用非句法功能初探」,『漢語學習』第五期, 1996.
王光全, 「過去完成体標記“的”在對話語体中的使用條件」, 『語言研究』 第四期, 2003.
徐陽春(2002),「确定“S+VP+的 (+NP) ”結构中“的”字歸屬之我見」,『南昌大學學報』第四期, 2002.
袁毓林(1994),「句法空位和成分提取」,『漢語學習』第3期, 151-165.
_____,「謂詞隱含及其句法后果—“的”字結构的称代規則和“的”的句法、語義功能」,『中國語文』第4期, 1995, 241-255.
_____,「從焦点理論看句尾“的”的句法語義功能」,『中國語文』第1期, 2003, 3-16, 95.
_____,「怎樣判定語法結构的類型?」,『對外漢語研究』 第5期,商務印書館, 2009, 145-168.
張宝林,「“是…的”句的歧義現象分析」,『世界漢語教學』, 第1期, 1994.
張伯江・方梅,『漢語功能語法研究』, 江西教育出版社, 1996.
趙淑華,「關于“是……的”句」,『語言教學与研究』, 第1期, 1979.
朱德熙,「說“的”」,『中國語文』第12期, 1961a, 1-15.
_____,「關于動詞形容詞“名物化”問題」,『北京大學學報』第4期, 1961b, 53-66.
_____,「“的”字結构和判斷句」,『中國語文』第1,2期, 1978, 125-150.
_____,『語法講義』, 商務印書館, 1982, 227-230.
_____,「自指和轉指:漢語名詞化標記‘的、者、之、所’的語法功能和語義功能」,『方言』第1期, 1983, 55-84.

www.kci.go.kr

Abstract

The Analysis of Korean Interpretations Correspondent of Modern Chinese '(Shi)……De' Construction and the Instructive Plans for the Construction.

Lee, Eun-kyoung

Chinese '(shi)……de' construction is instructively interpreted either as '-ess-ta' or '-kes-ita' in Korean. Upon observing that '-ess-ta' can also be the Korean semantic counterpart of a Chinese dynamic auxiliary particle 'le', the analysis outlined in this article provides a more accurate description of the interpretive differences between '-ess-ta' and '-kes-ita' for '(shi)……de' construction. In this article, it is shown that the analysis can comprehensively resolve the errors that may arise from the instruction of '(shi)……de' construction to Korean learners. That is,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shi)……de' construction, while generally assumed to correspond with '-kes-ita' and '-ess-ta' in Korean, are unable to be fully determined when it is only interpreted as '-ess-ta' in Korean without a supplementary explanation for the interpret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instruction and description of '(shi)……de' construction by reducing the pragmatic errors, this article offers an analysis of the two different interpretations '-kes-ita' and '-ess-ta' and seeks to provide instructive plans based on the analysis.

Key words : de', kes, '(shi)……de' construction, dynamic auxiliary particle 'le', Korean '-kes-ita ' construction, '-ess-ta' construction, event sentences, state of affairs sentences, presupposition, focus

투 고 일 : 2015. 9. 10. / 심 사 일 : 2015. 9. 15.~ 2015. 10. 15. / 게재확정일 : 2015. 10. 16.

www.kci.go.kr